

# 강진청자축제 흥행대박

## 9일간 연일 관람객 성황... 민간요 4억5천만원 매출

강진군 대구면 강진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개최된 제41회 강진청자축제가 연일 성황을 이룬 가운데 9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4일까지 이어진 강진청자축제는 언론매체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실시간 홍보로 행사장 주변 90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가득 차는 등 연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강진관요(청자박물관)는 강진청자판매장에서 청자판매에 참여해오다가 민간요 활성화를 위해 전통청자 전시부스만 운영하고, 순수 민간요 28개 업체만 입점해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민간요 매출이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4억5000여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업체들은 목걸이, 팔찌 등 새로운 디자인의 여성 장신구를 내놓고, 30% 할인판매, 즉석경매와 경품행사 등 자발적인 판촉 프로그램도 판매 증가에 한 몫을 했다.

강진청자를 알리고 청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자 일일교실, 청자공예 만들기, 청자상감체험 등은 청자의 대중화는 물론 여름방학을 맞아 축제장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소중한 체험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물레성형체험과 청자파편 모자이크

체험, 청자문양 티셔츠 물들이기 체험 등에는 외국인들까지 대거 참여했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 밖에도 높이가 6m에 이르는 청자투각칠보향로 등 대형 청자조형물과 해바라기 동산 등 축제장 주변 곳곳에 마련돼 시선을 끌었다.

내년에 열리는 제42회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과 도자기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용천시, 일본 하사미정이 함께 참여하는 한중일 도자문화에 속속제로 강진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에어로빅 불 밝힌 화순 문화광장

지난 2일 밤 9시 열대야 속에 인근 주민들이 화순군 문화광장 야외무대에 모여 에어로빅을 배우고 있다. 화순군 생활체육회는 오는 10월 까지 매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문화광장 야외무대, 공설운동장, 제일중학교, 동구리 저수지 야외무대 등 4곳에서 '광장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담양중 2년째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20명 방중 이어 5~9일 곤동중 학생들 담양 찾아



## '동부(공)' 자금자족 초석 마련

### 도농기원 '전남1호' 육성 성공...실증재배 나서

수입에 의존했던 '동부(공)'를 자금자족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실험연구소는 5일 "생육기간이 짧고 한꺼번에 모두 수확할 수 있는 동부 '전남1호' 육성에 성공, 올해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증재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두과작물, 이른바 공 종류인 동부는 송편의 속재료(소)나 떡고물, 잡곡밥 등의 수요가 늘면서 수입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웰빙식품으로 주목받는 모시 인삼편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그러나 기존 동부는 냉습성으로 꽃이 계속 피고 열매가 맺어 그만큼 수확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열매도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는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 농가에서 재

배를 포기한 지가 오래된 상태다. 갑보다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산 수입이 급증, 연간 1만여t으로 수입액만도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미얀마 등 수출국의 인건비 상승과 재배면적 감소로 원재료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전남도농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동부 육성에 나서 지난해 첫 수확을 거둔 데 이어 올해 10여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재배에 들어갔다.

농기원은 원산지가 아프리카인 동부 종자를 육성, 키 40cm 정도로 콩과 비슷하고 열매가 동시에 익는 '전남1호'를 만들어냈다.

한꺼번에 익는 만큼 콤바인 수확이 가능하고 넓은 면적에서 재배도 가능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국 절강성 후주시 안길현 소재 곤동중학교 학생들이 5일부터 9일 까지 담양중학교(교장 김성희)를 찾아 교류행사를 갖는다.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2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담양중 20명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안길현과 향주, 상해를 다녀온 바 있다. <사진> 담양중은 5일 "5일부터 9일까지 곤동중학교 학생들이 서울과 담양을 찾아 홈스테이 및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과 담양중 학생들은 한옥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교류 가정 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1박 2일 체험 등을 통해 돈독한 우의를 다지게 된다.

김성희 교장은 "언어의 장벽은 있으나 한 번의 만남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원한 우정으로 거듭나 꿈과 미래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양중은 매년 추진되는 중국과의 교류활동에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방과후 활동 부서에 중국어회화반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담양군은 중국 절강성 안길현과 대나무로 인연을 맺어 지난 2004년부터 대나무 축제시 상호 방문 등 문화교류를 이어왔으며, 2006년부터 청소년교류로 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에게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 건강채소 여주로 만든 장아찌·쿠키 인기

### 강진 '콩새미' 7종 출시 서울 백화점 등 판매

강진지역 사회적기업인 콩새미(대표 국령애)가 최근 건강채소로 부상하고 있는 여주 효소, 장아찌, 쿠키, 차 등 7종의 제품(사진)을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콩새미의 여주 가공식품은 현대백화점 명품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방송사에서 이들 식품의 생산과정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령애 콩새미 대표는 "여주의 모토르디카 성분은 당분 연소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활성화시켜주는 '식물

인슐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와 비만인 사람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러한 건강채소를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콩새미는 강진지역에서 여주를 생산하는 농가 9곳으로 구성된 특화작목반에서 여주를 공급받고 있다.

한편 여주는 사망률이 낮고 고품질이 많은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 비결로 유명한 건강채소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 전북

## 서울대생들과 함께하는 과학캠프

### 부안군 6~8일 사흘간 관내 초·중고생 129명 참여

부안지역에서 서울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과학캠프가 운영된다.

부안군은 5일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지역 내 초등학교생 94명, 중학생 35명 등 129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서울대학교 하계 과학캠프'가 부안동초등학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참가 초·중학생은 선착순 접수로 모집했으며 캠프 기간 동안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한 학습활동을 갖게 된다.

특히 서울대학생들은 어려운 과학이론을 교과와 교재를 이용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으로는 확률계

임, 큐브의 기하학적 원리, 러시아 룰렛과 윗놀이, 포커와 베스킨라빈스 게임, 비행기 만들기, 투석기 만들기, 모기퇴치제 및 휴대용 에어컨 만들기, 고체항수 만들기, 무미놀 반응 실험이 펼쳐진다. 또 세포·조직 관찰, 코아세르베이트 및 마이크로스피어 관찰, 화석만들기, 알베도·빙하 실험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일대일 고교생 멘토링도 추진된다. 부안고등학생 25명, 백산고등학생 25명, 부안여자고등학생 50명 등 3개 학교 100명은 서울대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대학입시 관련 학습방법을 멘토링하게 된다.

/부안=정재용기자 jjy0681@

## 전주 구도심 관광호텔 설립 붐

한옥마을 인기 타고 최근 2곳 개장...상권 활성화 기여

전주시 구도심에 관광호텔이 속속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 내 중앙동에 한옥형 객실 30실을 갖춘 태조궁 관광호텔, 다가동에 비즈니스형 호텔인 객실 63개의 풍남관광호텔 등 2곳이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다.

또 고사동의 전주호텔(객실 34개)이 올해 안에 문을 열고, 최근 건축심

의를 마친 시내마펠리호텔(객실 66개)이 관광호텔로 내년 초 개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랜드그룹이 최근 인수한 전주코아관광호텔을 중·개축 해 총 110여개 규모의 호텔을 연말에 열기로 하는 등 구도심에 관광호텔 조성 붐이 일고 있다.

이들 관광호텔은 수년전부터 크게 늘고 있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장하는 호텔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문을 연 풍남관광호텔은 직원 14명을 채용했으며, 연말 재개장 예정인 코아관광호텔은 100명 가량의 신규채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이 중소규모의 관광호텔 설립과 재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면서 "객실 30개 이상의 오래된 여관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붐이 일고 있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전북도 7월 중앙공모 사업 7개 선정 국비 184억 확보

올해 전북도의 중앙공모 사업 유치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7개의 중앙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184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한 대형구조물·부품 검사장비 개발(85억원)', '중앙졸기세포 표적 방사선 치료용진원천기울 개발(59억원)', 'X선의 식

품 및 공중보건 이용기술 개발(18억원)' 등이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전북도가 확보한 중앙공모사업은 총 89개에 1757억원으로 늘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중앙공모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공모사업 발굴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올 전주소리축제 국악 대중화 중점 250여 프로그램 공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5일 "2013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고 제13회 전주세계소리축제 250여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조직위는 올해는 월드뮤직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국악 프로그램에서 관객 참여를 늘려 국악 대중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개막공연

은 올해 수석프로그램으로 영입한 세계적인 연주가 박재전 프로그래머가 맡았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아리아리랑 소리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10월2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연필뉴스

## 단신

### 전주시 안전한 여름나기 경로당 100% 에어컨 설치

전주시는 5일 "혹서기 폭염 등에 취약한 노인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달 내로 경로당 에어컨을 100%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575개소 중 404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한 시는 지난달 말까지 55개소에 에어컨을 설치, 설치율은 80%(459개소)를 보이고 있다. 또 이

들 경로당에는 매일 10만원씩 냉방비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 물보미(121명), 원스톱특고노인지원센터 돌보미(60명) 대상으로 폭염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노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가족사랑 천문캠프'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는 5일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이웃이 하나 되는 가족사랑 천문캠프'를 연다"고 밝혔다.

천문캠프는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되며 천체관측, 영상관람, 특별강연, 사계절 별자리 큐브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회당 40명으로 인원이 제한하며 사전 전화예약(063-620-6900)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항공우주천문대는 지난 2009년 남원시 노암동 춘향테마파크에 개관했으며, 주말영원과 보조망원경 등 1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고창군 귀농귀촌 우수마을에 마명 등 3곳 선정

고창군은 지난 1일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로 아산면 마명·학전, 공음면 상평 등 관내 3개 마을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우수마을은 2012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행정마을을 기준으로 5가구 이상 또는 귀농귀촌 인이 10명 이상 전입한 마을 중에서

귀농인 수가 가장 많은 마을을 선정했다. 마명마을은 5세대 11명, 상평마을은 2세대 10명, 학전마을은 5세대 8명이 귀농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3개 마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 정읍시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교육생 160명 모집

정읍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오는 19일까지 2013년도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 일반교양과정으로 한자지도사, 한자능력검정 2급, 역사 탐방복지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사주명리학&성명학, 종이접기영재지도사, 야생초화일교

실, 재테크&자산관리 총 8개 과정이다.

수강생은 교육과정별 20명씩 160명으로 정읍시 평생학습센터(063-537-1578)에 직접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음달 2일 개강 예정으로, 교육은 12월 19일까지 15주간 진행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다문화가정 자녀 '레인보우 대장정 투어단' 남원 방문

남원시는 5일 "영남권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대장정 투어단이 열차길 따라 이날 늦게 남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정은 코레일과 남원시 등이 연계해 열차길 따라 시행하는 전국 국토순례체제로, 다문화가정 자

녀와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생 등 모두 200여명이 참가했다.

5일 오전 부산을 출발한 투어단은 순천을 들려 남원에서 첫 1박을 하고 이후 서울과 강릉도를 거쳐 오는 9일 부산에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